

2008 제 21 호

서구의회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의회보

2008년 통권 제21호

CONTENTS



04 신임의장 인사말 | 서구의회의장 강성구

06 5대 후반기 서구의회 의원 현황

08 결의문 및 성명서 |

검단신도시 대중교통 시범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
일본 “독도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11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고가화 건설반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1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7 의원기고 |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 전원기 의원
검단신도시를 대중교통 시범 신도시로 ... • 홍순목의원
검암C와 실용주의 • 구재용 의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서구 지역에서 추진되길 • 송영우 의원
의장임기를 마치고 • 고월출 의원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0 문학마당 | 쌍둥이 • 검단3동 송문선
간추린서구사

35 건강상식 | 알아두면 특이되는 음식상식 50가지

36 의회방청안내등

- 발행일 2008년 8월 (제21호)
- 발행인 의장 강성구 ●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본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서구의회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민선 5대 의회는 주민과 가장 밀착한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서구의원 모두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오류로 인해 좌절하는 구민이 없는지, 힘에 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구민이 없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은 없는지 늘 가까이 살피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뛰고 느끼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서 선진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적인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일반도로화 사업, 가정뉴타운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각종 사업의 이면에는 소음과 분진 등의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환경의 문제, 그동안 일구어 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등의 민생과 지역경제의 문제 등 각종 현장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미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화합과 양보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민선 5대 1기 2년동안 정례회 4회, 임시회 13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학교급식특별위원회, 북향조사특별위원회, 인천도시철도2호선고가화반대특별위원회 활동등 서구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선 5대 2기 후반기에는 사업운영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구민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서구의회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기초로 하여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구민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7월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기간 동안 에도 더욱 열심히 의회를 이끌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서구의회에 대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의장 강 성 구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현황

● ● 의 장 ● ●



강 성 구

(신현원창, 석남1,2,3동)

● ● 부의장 ● ●



송 영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의회운영위원회

● ● 위원장 ● ●



전 원 기

(검단1,2,3,4동)

● ● 간 사 ● ●



박 구

(가정1,2,3동)

● ● 위 원 ● ●



홍 순 목

(검단1,2,3,4동)

● ● 위 원 ● ●



구 재 용

(검암경서, 연희동)

● ● 위 원 ● ●



최 용 환

(신현원창, 석남1,2,3동)

기획총무위원회

● ● 위원장 ● ●



임 동 주
(가좌1,2,3,4동)

● ● 간 사 ● ●



최 용 환
(신현원창,석남1,2,3동)

● ● 위 원 ● ●



전 원 기
(검단1,2,3,4동)

● ● 위 원 ● ●



안 생 준
(가좌1,2,3,4동)

● ● 위 원 ● ●



김 영 옥
(비례대표)

● ● 위 원 ● ●



고 월 출
(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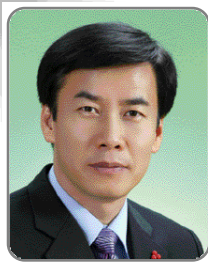
복지도시위원회

● ● 위원장 ● ●



전 재 안
(가정1,2,3동)

● ● 간 사 ● ●



구 재 용
(검암경서,연희동)

● ● 위 원 ● ●



이 종 민
(검단1,2,3,4동)

● ● 위 원 ● ●



홍 순 목
(검단1,2,3,4동)

● ● 위 원 ● ●



민 태 원
(검암경서,연희동)

● ● 위 원 ● ●



박 구
(가정1,2,3동)

● ● 위 원 ● ●



송 영 우
(신현원창,석남1,2,3동)

검단신도시 대중교통 시범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지구지정을 거쳐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당초에 540만평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200만평이 축소된 340만평에 대해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후, 인천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의 염원에 힘입어 국토해양부로부터 540만평의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이라는 낙관적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규모면에서 분당급 신도시가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검단주민은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원하고 있다.

현재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광역교통계획을 담고 있어야만 검단신도시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명실상부한 명품신도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검단지역은 검단 1,2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등 6곳에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류지구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30만평 단위로 쪼개어 개발하다 보니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광역교통계획이 부재하다.

4만여 인구가 불과 수년 만에 12만이 넘어서도록 검단으로부터 인천도심과 서울, 경기도 등으로 통하는 교통대책의 추가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검단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세워진다고 해도 당장 12만여명의 검단주민들은 현재의 교통 불편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18년도로 검단구간 개통시기를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4년까지 반드시 동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2018년 개통 또한 확신할 수 없다.

신도시 계획에 따라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는 그 계획이 백지화 되어 공사 중단 후 왕복 2차선의 임시도로 정도로 건설되고 있다.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된다면 주민이 참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만약 새로울 것도 없고 부실한 광역교통대책을 담고 있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검단신도시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천도심으로의 광역교통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봉수대로의 확대, 경기도로의 광역교통대책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일산대교 연결도로의 조기 완공으로, 서울로의 광역교통대책은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연결로 그 계획이 세워지길 기대한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나 봉수대로 확대, 제2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연결도로 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짜여진 계획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연결은



아직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검단 주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주요한 에너지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건설되는 검단신도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생활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중교통 시범신도시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연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서북부가 왜 낙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통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주를 위한 선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저렴한 집값과 전세가로 잠시 들러 가는 곳이 된다면 이런 곳에 애항심을 기대할 수 없다.

애항심이 없는 도시는 활기를 잃는다. 도시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바로 낙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기적인 교통대책 서울 메트로 9호선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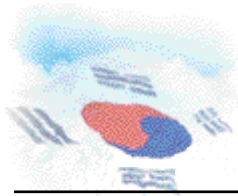
그리고 이는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의 개발이익을 통해 건설되어질 것이며 단순히 비용편의 비율(BC Ratio)만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이 직접 연결된다면 서북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다시 정주를 목적으로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져 비용편익비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서북부 연결에는 비용편익비율이 아닌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검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연결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08. 6. 2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일본 “독도영유권 명기” 규탄 성명서

신라시대 이래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도발행위를 자행하며 그 동안 미래 발전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망동에 4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의원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정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두 나라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됐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41만 서구민과 서구의회의원 일동은 지난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혼(魂)을 받들어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에게 민족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수호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도는 국제법과 실효적인 점유원칙 면에서 볼 때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의 사회과목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는 행위는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 후세들의 정신을 썩먹는 비열한 행위이다. 일본은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사죄하라.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치권은 일체의 당리당략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유사시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08. 7. 1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원 일동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고가화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인천 도시철도고가화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박 구)는 2007년 5월 도시철도2호선 지상화 건설 계획에 1,0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여 식발등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규탄대회 이전 서구 지역 기관장·국회의원등과 함께 단식투쟁을 단행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구의 현안사항인 2014년까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구간의 동시개통 및 고가화반대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구통과구간 중 고가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2014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전원기)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행정업무를 저하시키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구성하여 총 17개월 동안 활동하여 153건의 조례·규칙을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총 3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일조함은 물론 타 시·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인일보

2007년 11월 02일 금요일
004면 중입



**셋째 아이 출산·입양
축하금 1백만원 지원**
인천 서구의회 기초단체 첫 조례
돌래 쌍둥이도 포함 ... 내년시행

인천 서구의회가 입양을 하거나 셋째 이상의 출산할 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인천 구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이회는 지난 달 29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단행표결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 가정에 출산한 셋째부터의 신생아 ▲입양육친 및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아 중 5세 미만 위탁 전 아동 등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셋째 이후 쌍둥이에게 1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축하금을 받으려면 아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출산, 입양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출대상자는 출생,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영옥(비례-대동합천구신당) 의원은 “대도시의 경우,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저지급세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기적이고 관련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 지치단체 중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에는 못한 강희, 송진근 2구이다.

시정취재가-problem@kureon.com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북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최용환)은 인천 북항내 부두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및 교통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7년 1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여왔으며, 북항개발사업·북항배후부지개발사업·북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환경에코(ECO)단지 조성현황·북항주변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토의하고, 항만행정협의회의 북항관련건의사항, 현재 운영중인 목재 부두의 수피등의 처리문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현황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한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목재부두 운영사인 (주)아이엔티씨를 현장방문하여 “목재 및 잡화부두 야적방지대책 강구 및 대형화물트럭(원목적재차량)의 날림(커버덮기)에 따른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근대 및 세륜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당부하는 등 자체환경저감시설 강화에 노력하였다.





◆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홍순목 의원(검단1,2,3,4동)

획일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요구등)방안은?

Q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35개교, 유치원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올해 1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와 신호체계 개선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 확보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단 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우리구로 시설이관 전까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향후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 조치할 것이며, 특히, 과속감지카메라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관리·설치중인 개당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시설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설치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나, 열악한 검단지역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에 건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구차원에서의 물가대책(쓰레기 봉투 값인하,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노력)?

Q 2008.3월 행정안전부 대통령업무보고 및 인천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 요청에 따라 금년에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며, 봉투가격과 연관되는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료 감면 방안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바 반입수수의 감면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등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비의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2005년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유가상승 및 인건비등

여건변화에 의거 각 처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항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 8개 구청 중 우리 구가 가장 낮은 대항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유통구조는 쓰레기봉투를 조달 구매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입고한 후 봉투판매소의 주문을 받아 업체에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봉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윤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향후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우리구 주민들의 쓰레기 수수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다음으로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 노력은?

Q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고유가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당초 예산 중 경상비 예산의 10% 절감계획을 목표로 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10%를 절감하였음.

또한 직원의 공무 국외여행 경비를 포함한 경상비 예산을 총 5억 9천 6백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공단의 사업·조직과 인력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공단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에도 본 예산 편성시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07년 12월 용역 보고 완료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Q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06.12.22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우리구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공사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의원이 제기하신 타당성 여부등에 대하여는 자체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서구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은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 우리 구의 발전지침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구재용 의원(검암경서, 연희동)

악취와 미세먼지등 서구지역 환경오염 대책은?

전임 청장 재직시 환경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악취 및 매연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강화와 공해유발사업장의 이전추진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실명화,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정책추진”과 병행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2007년도 상반기 민원건수 145건 대비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54.5%민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악취 및 미세먼지등 환경오염의 대책과 관련하여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20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좌동 1개소, 석남동 3개소, 경서동 1개소등 5개소에 무인 악취 포집기를 7월초에 설치·완료하여 악취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08년 9월부터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두 배로 강화하는 등 악취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북항 항만운영 사업장과 수도권매립지지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하여 실시간 환경감시 CC-TV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7개 구역 32.7km구간에 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행정력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연희동 분동대책은?

연희동의 분동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등을 개정하면 가능하나 인력과 관련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조직 감축 기조에 따라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초과한 정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총 정원 내에서 분동을 추진할 경우 타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현재는 분동의 시기를 고려하고 있음.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잉여인력이 확보되거나, 추후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발생할 시 우선적으로 분동을 추진하고자함. 분동 이전까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공항고속도로 검암IC 설치계획은?

검암IC는 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인 1994년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후 검토·협의하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도심지 교통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서울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암IC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검암IC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7년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조사·설계용역이 진행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검암IC의 접속 노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방향만이 아닌 서울과 공항 양방향의 진출입 확보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구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설계 용역기간 중 관계기관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요구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 구 의원(가정1,2,3동)

가정동 도시재상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의 대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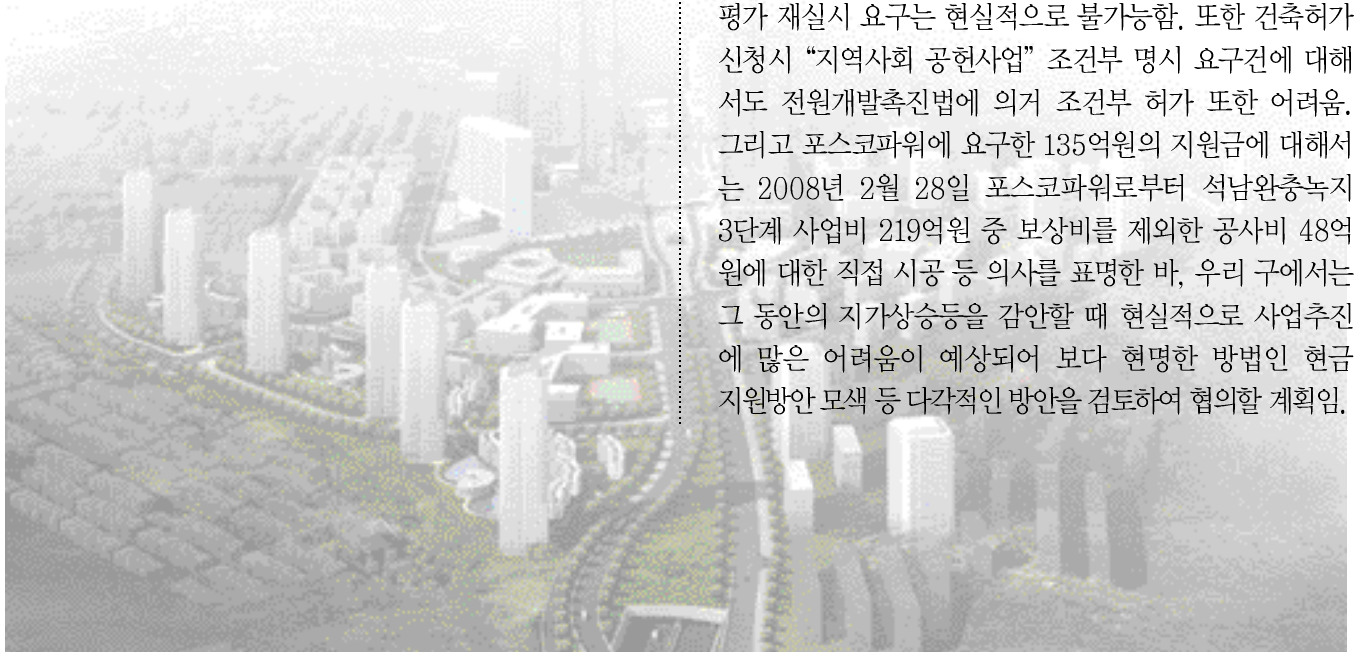
Q 현재 본 사업의 진행상 보상단계로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엔 많은 시일이 지났으나, 현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할 것임. 우리 구를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함과 아울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송영우 의원(신현원창, 석남1,2,3동)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에 대하여

Q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에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구의 의견 제시건이 접수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라경제자유구역등 대형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선호 시설인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 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미지 저하 및 지역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발전소 건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으나, 우리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음.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재실시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또한 건축허가 신청시 “지역사회 공헌사업” 조건부 명시 요구건에 대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조건부 허가 또한 어려움. 그리고 포스코파워에 요구한 135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28일 포스코파워로부터 석남원충녹지 3단계 사업비 219억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48억 원에 대한 직접 시공 등 의사를 표명한 바,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의 지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현명한 방법인 현금 지원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할 계획임.





전원기 의원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지난 7월7일,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전 제5대 지방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었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특위활동, 의회운영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이상(理想)을 실현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하지만,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으며, 주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는 사실 또한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바퀴에 비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견제와 균형 또한 운용(運用)의 미(美)를 살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서구는 역동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도로화사업』 등 각종 대단위 신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및 『검단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굵직한 국·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서구발전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단지역의 고질적인 교통과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교통오지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개통』은 예산 부족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적신호가 켜졌고, 암울한 회색도시로 낙인찍게 만들어 왔던 수도 권매립지 관리공사 앞의 1,500만톤의 순환골재 처리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허울 앞에 삶의 보금 자리를 양보하고, 소음과 분진이 난무하는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침체된 경제사정은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고 애타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삶의 무기력증(無氣力症)이 육체적, 정신적 공황상태(恐慌狀態)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우(杞憂)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 구민과 기업들이 서구를 떠나지 않고 희망의 얼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으며, 우리서구가 제1의 교육도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실시된 세차례의 선거를 통해 민심(民心)을 읽고, 민심(民心)의 힘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도의적(道義的)인 책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성인들은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탈무드」에서 「인간의 입이 하나,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소수 기득권자들의 편이 아닌 권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 이웃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초심(初心)을 되새기며, 훗날 「제5대 서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만 서구주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검단신도시를 대중교통 시범 신도시로...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검단을 포함한 서북부 연결 추진해야

지역개발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검단 김포신도시 유치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김포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동참하면서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이 다시 540여만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김포의 한강신도시와 더불어 규모면에서 충분히 서울메트로 9호선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규모면에서 분당급 신도시가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검단주민은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원하고 있다. 검단지역은 2,30만평 규모의 7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개발되다 보니 대규모 개발에 필수적인 광역교통계획이 부재하다. 4만여 인구가 불과 수년 만에 12만이 넘어서도록 검단으로부터 인천도심과 서울, 경기도 등으로 통하는 교통대책의 추가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검단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현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12만여명의 검단주민들이 겪어야 할 당장의 교통 불편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18년도로 검단구간 개통시기를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4년까지 반드시 동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2018년 개통 또한 확신할 수 없다. 신도시 계획에 따라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는 그 계획이 백지화 되어 공사 중단 후 왕복 2차선의 임시도로 정도로 건설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봉수대길 확대, 제2외곽 순환도로와 일산대교 연결도로 건설 등의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교통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지만 검단, 김포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바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 김포신도시 직접연결도 신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이고도 주요한 에너지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건설되는 검단신도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생활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중교통 시범신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수도권의 서북부가 왜 낙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교통기반시설의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통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주를 위한 선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저렴한 집값과 전세가로 잠시 들러 가는 곳이 된다면 이런 곳에 애향심을 기대할 수 없다. 애향심이 없는 도시는 활기를 잃는다. 도시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바로 낙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기적인 교통대책 서울 메트로 9호선 유치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이는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의 개발 이익을 통해 건설되어질 것이며 단순히 비용편익비율(BC Ratio)만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이 직접연결 된다면 서북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다시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져 비용편익비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서북부 연결에는 비용편익비율이 아닌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검단신도시 유치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조속하고도 전환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구재용 의원

검암IC와 실용주의

공사장인 서구에 또 하나의 공사가 추가되는 모양이다. 이름하여 검암IC!!

최근 한국토지공사는 검암IC의 사업 이유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청라지구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검암IC는 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1994년)부터 검토·한 이후 지금까지 미루어져오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끊임 없는 요구가 있었고 급속한 교통의 증가로 서구의 교통난이 극히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라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역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로가 연결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무엇이 부족해 보인다.

도로는 항상 양방향이어야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솔길이나 비포장길이면 아무렇게 만들어봐도 다니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면 그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하나 놓인 길처럼 아무렇게 다니다간 금방 안녕하고 마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경제도 실용, 외교도 실용, 정치도 실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실용의 참 뜻이 헛갈린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실용을 외치니 최근에 일어나는 실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국민은 이제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어느 날 대통령이 말한 내용에 질이야 어찌되었던 싸게만 가져와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면 실용이 되는지?

독도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대통령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하면 이것도 실용인지 도무지 실용의 참뜻이 무엇인지 헛갈려 정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용이 무엇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실용이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장관도 없어 보이고,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주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바보가 된 느낌이다.

또 하나 덧붙이면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모후보자는 공영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선 대보고 엇비슷하게 맞으면 사용하는 것이 실용의 시대에 실용주의자들의 주장인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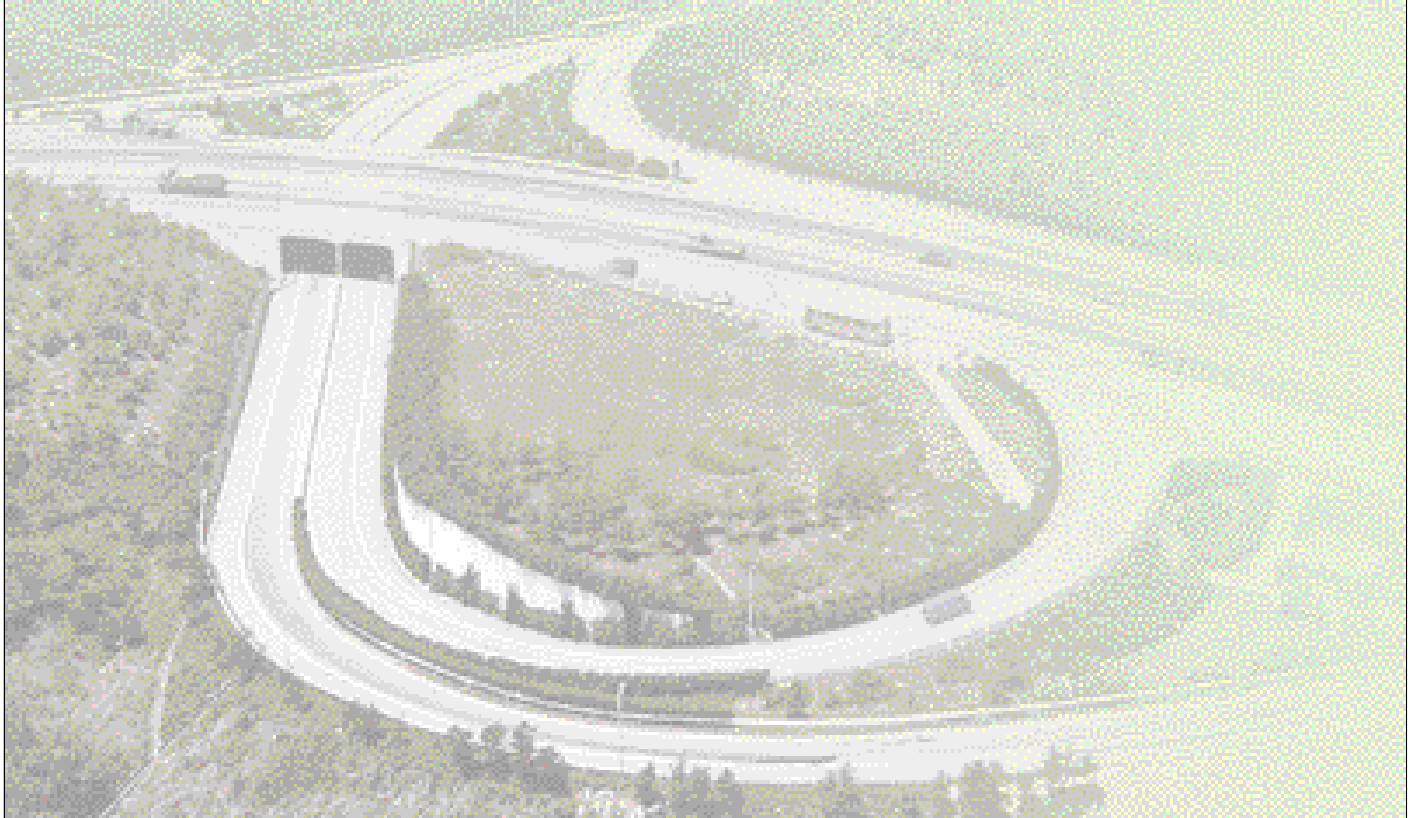
지금 당선되고 나서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뭐 속 시원한 뉴스하나 듣기 힘든 요즘 수입 원자재 값이 덩달아 춤을 추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쯤 되면 서민들은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KOSPI 3000은 거뜰하고 임기를 마무리 할 시점에 가면 KOSPI 5000은 될 것이다」라고 공언한 실물경제의 경제학자가 이 나라를 경영 하니 제발 그 말대로 그렇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다.

또한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우리서구의 검암IC가 진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지역주민들이 화가 나서 일어날 때 까지 혹은 주민들의 반응을 보가며 사업을 하는 사고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정으로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차근차근 일 해가는 한국토지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송영우 의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서구 지역에서 추진되길

지난 2007년 9월 4일 홍문표의원의외 5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발전량 1Kwh당 0.5원의 지역개발세 과세개정 입법이 그해 11월 29일 행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보류되더니 끝내 지난번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채 폐기처분 됐다. 화력발전에 대한 개정 입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한전등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해 다시 법안소위로 재회부된 것. 그것이 화력발전 지방세법 개정안의 전부다.

이와 관련해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전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건의하고, 대정부 및 국회 차원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세 과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회가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나선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세는 수력(92년)과 원자력(06년)에는 적용하고 있다.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저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에 비해 대기및 수질오염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화전이 소재한 국회의원 들로부터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공평과세 도모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발전회사에 발전량 1Kwh당 0.5원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서구 발전소 발전량 대비 지역개발세로 연간 90여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전체적으로는 238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의 이 같은 건의문에 대해 인천시는 산자부와 한전측에서 전기요금 인상등의 요인을 들어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적극적 로비를 통한 반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타 시·도와 관련입법 추진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행정안전부 또한, 금년도에도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울산 북구 윤두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 과세입법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추진했지만 입법발의를 위한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게 했다.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 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들의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이중 부담의 논리(?)를 내세운 한전의 저항에 가로막혀 법률개정은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염연히 따지면 발전소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전력요금 추가인상 없이도 지역개발세 납부 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부담에 대해서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지원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금은 대기와 수질오염, 그리고 지가하락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인 반면, 지역개발세는 표현 그대로 지역균형발전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등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화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비용은 연간 4.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온배수와 분진, 송전탑등 집단민원 요인으로 지역개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등 OECD주요국가(10개국) 들은 전력소비세나 환경소비세 과세를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시가 서구와 옹진 군등 화전 소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별도로 방문해 구간 추진 경위에서부터 과세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움직임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 입법발의 공동서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인천시나 화전소재 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과세 입법발의를 위한 충분한 서류 준비 및 동료의원 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천시나 화전 소재, 공직사회 및 의원들의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세가 더없이 강요받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화전 과세와 관련된 지방 세법 개정이 41만 서구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노력으로 일귀내 주길 바라고 희망한다.



고월출 의원

의장임기를 마치고

요즘 신문지면과 TV뉴스를 장식하고 국민들의 힘든 생활에 짜증을 더해 주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지방의원으로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감회가 찡찡하다.

내 자신 지방의원에 제의를 받았을 때 지방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 작은힘이지만 기초의회의 산소같은 역할을 해 보겠다고 가족·내 자신과 약속하고 시작했었다. 하지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뒤돌아 보면 기초의회에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남은 2년을 어떤 식으로 활동하여 구민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지 많은 고뇌를 해야겠다.

여성·비례대표의원이 의장이 되었다고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던 당시 나는 취임사에서 밝힌듯이 의회의 위상정립과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었다. 특히 서구의회는 그동안의 구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던 일이 많아 좀 더 부담이 있었던 사실로 다시는 불미스런 일로 지면을 장식하는 일이 없게 하려했다. 또 하나는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이 필수라 생각되어 초선의원이 많은(14명중 12명) 의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류에 맞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했다. 사실 의정 활동을 위한 지방재정·지방행정·사회복지·도시환경등 이론이 기초가 된다는 생각이다. 뭔가 달라진 서구의회를 위해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구민여러분에게 감히 보고 드리려 한다. 이번 7월 정례회에 쏟아진 구정 질문을 보며 의원들의 구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임감이 의원으로써 직무를 다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며 감동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게 나에게서 큰 보람이었다. 우리의 서구 크고 작은 현안들(가정루원시티·도시철도 2호선 전면 개통·검단 신도시 인프라구축 에코단지건설등) 대해 늘 연구하며 힘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만한 일이 무엇인지 연구가 대단하다. 쓰레기 봉투값의 인하를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 의원, 결산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지난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직접 찾아 자문을 구하는 의원, 매일 출근하여 민원과 구정을 꼼꼼히 챙기며 일하는 의원, 해외여행에 부당성을 과감히 피력하는 의원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의장으로써 왜 그리 고맙고 자랑스럽든지!

나는 감히 국민들께 ‘서구의원들이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며 알려드리려 한다..

사실 지난 전반기 2년은 잦은 선거로 말하자면 대선 총선 기간 중 의원들이 정당의 행사·선거에 동원되어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가 없었음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보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실감되는 느낌이었다. 여론조사 통계에 자주 나오는 기초의회 불신의 1순위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당론에 따르기 때문이라 조사되고 있다. 이결과는 지방의원은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꾼이 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의장으로 재임 중 서구청장의 중도 사퇴로 절차상 의장이 사퇴서 받아야 했기에 흔치 않은 청장 사퇴서를 접수한 의장이 되어 또 작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중앙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약속하고 떠나며 혼란스런 서구의 갈등과 구정공백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의장은 그냥 걱정스럽고 왠지 국민에게 송구스러웠다. 신임 청장님이 잔여임기 2년을 어떻게 이끄느냐는 현안사항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면 서구의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

되어 사심을 버린 600년 서구사랑의 약속을 꼭 실천하여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종식시키면 한다. 그 동안의 공백을 매우느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더위도 잊은 채 매진하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하다.

내가 의장직을 수행하며 Max Webber의 리더십 이론인 리더의 덕목과 자질을 많이 유념했었다. 내용인즉 리더는 조직원의 행복을 배려하고 조직원의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역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협조와 과분한 사랑을 받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가슴깊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스스로 세웠던 목표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며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장선거에서도 이제는 구의회 나름의 원칙을 마련하여 자질과 능력이 있는 의원의 의장이 되어 좀더 나은 기초의회의 상 정립과 전문적인 집행부 견제와 파트너 역할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나는 이번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그 동안 같이 생활하며 어느 정도 능력과 도덕적인 자질을 알기 때문에 서구의회를 위해 일단 불미스런 일로 오르내렸던 의원은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었다. 이번에 출범한 서구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축하와 기대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화합과 능률이 극대화된 의회로 만들자고 제안 드리며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려한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와 서구의회의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며 타 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스스로 만족할 그날을 위해 매진하겠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수해지역현장방문



외국인한반도 통일기원응원대회



의장단 기관장 방문



의원간담회



의장단선거



경인고속도로직선화 기공식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보훈가족 사랑나눔큰잔치



07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신생요양원잔치



서구가정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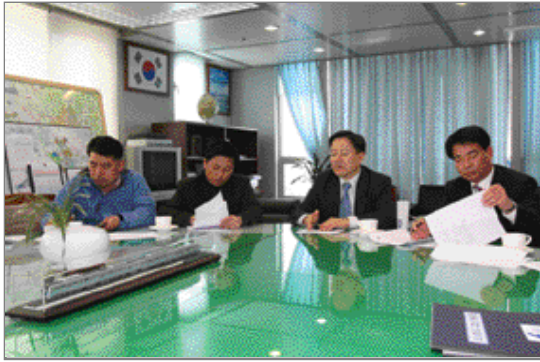


도시철도지중화반대에 따른 간담회



제63회 식목일나무심기 행사

Photo News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방문



자원봉사격려



제147회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사회복지시설방문



쌍둥이



송 문 선
검단3동

한 달 전쯤, 쌍둥이를 혼냈습니다.

원인은 딸아이에게 있었지만, 딸아이만 꾸중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들까지 얹혀놓고 혼을 낸 것입니다.

욕심 많고 다부진 딸아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줄곧 제 오빠인 아들보다 어느 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잘 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아들 녀석은 한글을 깨우치지 해 아내를 어지간히도 애태우게 하였지만, 딸아이는 입학하기 1년 전에 이미 한글을 깨우쳐 제 오빠가 틀리면 틀린 곳을 잘도 지적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쌍둥이에게 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줄 알게 하겠다고, 딸아이에게는 피아노를, 아들에게는 바이올린과 태권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피아노에 재미가 들려 학교에 다녀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건반을 두드려 대더니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웬만한 곡은 그럴듯하게 흥내를 낼 정도가 되었고, 한자 급수 시험도 거뜬히 합격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들은 태권도 도장에 다닌 지 2달 만에 재미없다고 발길을 끊더니, 바이올린도 악기만 사다놓고 세 달 넘게 과외를 시켜도 뽕뽕대며

바이올린을 말그대로 껑껑이로 만든 후, 어느 순간 엔가 그것마저도 안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아들에게 아내는 “어찌된 애가 끈기도 없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시도때도 없이 잔소리를 해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 좋은 아들 녀석은 혼날 때만 잠시 시무룩하지, 30분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듯이 천방 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제 동생 피아노 치는 것을 방해하다 혼나고, 어쨌든 그 때는 아들을 향한 아내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서 그 고함소리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전래동화, 알기 쉬운 역사책, 세계민화집, 백과사전등 거의 100여권에 달하는 책을 할부로 들여놓았습니다.

저한테는 일언지하 상의도 없이.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들 책장엔 뽕뽕 찢어하는 책들로 메워져 있고, 나는 그 규모에 놀라고, 내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책가격에 또 한번 기절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아내의 표정엔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나한테 책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했어도 털 서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이미 었지러진 물이고, 깨어진 독인걸.

그런데 책을 들여 놓고 난 후, 천방지축 아들 녀석의 행동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놀다놀다 지친 아들 녀석이 장난삼아 동화책 책장을 이리저리 넘겨보더니 흥미가 났는지 었드려 발장구를 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순식간에 읽어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싫증을 워낙 잘 내는 녀석이라 몇 조금이나 가나 보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을 붙잡고 발장구 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일주일도 못 돼 전래 동화책을 모두 다 읽어버렸습니다.

참 재주는 좋은 놈 같습니다.

헌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아들 녀석이 책에 흥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부부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도 때도 없는 아들 녀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내는 일찌감치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 궁금한게 있는데요.” 라고 할라치면 아내는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책에 다 나오니 책 찾아봐” 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질문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오고... 아들녀석은 저만큼이나 엉뚱한 질문만 해댈니다.

예를 들면

“주몽은 누구한테 활을 배우고 왜 활을 잘 쏘는지?”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유관순 누나는 우리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누나라고 하는지”

“안중근의사나 운동길의사가 아픈 사람을 얼마나 잘 고치는지” 등등

얼토당토 않는 녀석의 질문에 어느덧 나 자신도 아내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요량으로 아들 녀석은 학교 숙제, 눈높이, 영어테이프 듣기, 동영상 강의등, 제 할일을 후딱 끝내 놓곤, 문 꼭 닫고 학교 숙제에 끙끙대고 있는 제 동생 방에 들어가 자기 숙제 다했다고 자랑하면서 제 동생 침대에 떡하니 었드려 발장구치고 흥얼대며 동화책을 읽어대니,

아무리 무던한 딸아이라도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딸아이의 아빠, 엄마를 부르는 고향소리가 잠시 후 터져 나오고 그와 동시에 아들 녀석이 부리나케 제 동생 방에서 뛰쳐나와 제 방으로 줄행랑을 칩니다.

그리곤 바깥 동정을 살핀 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살그머니 거실로 나와 제 동생 방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는 후다다닥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딸아이의 징징대는 고향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런 녀석 덕분에 우리 집은 언제나 시골장터 국밥집 같습니다.

몇 달 전 밤에도 아들은 벌써 한 시간 전에 제 할일 다해놓고 거실에 었드려 저 좋아하는 대조영을 보고 있는데 딸아이는 그 때까지도 하품을 연신 해대며 컴퓨터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요즈음 딸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고 숙제도 건성으로 하며 무엇을 해도 집중을 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 답니다.



알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던 딸아이가 그렇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동영상을 끝내고 일어서는 딸아이의 눈을 보니 잠으로 반은 감겨있습니다.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바로 그때.

아내의 다그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후벼 팝니다.

“혜진이! 영어 테이프 들어!”

순간 꼭 참고 있던 분노가 치솟아 오르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혜진이, 승현이. 이놈들 이리 들어와!”

아이들이 겁먹는 표정을 하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혜진이 왜 그렇게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수학이 어려워서 그래?”. “수학이 어려워서 그래?”

고개 숙인 딸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아빠가 물어보잖아? 집중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동안 오빠만 못한다고 때렸는데, 이제는 혜진이도 못하면 매를 댈 거야, 알았어!”

딸아이는 얼굴까지 벌게지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런 아이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화난 얼굴을 금세 풀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는 미명하에 지금 내 자신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고작 10살 밖에 안 된 아이들이 졸업서까지 공부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기적인 나를 탓하기라도 하듯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아이들이 놀랄까봐 안방에서 재우기로 하고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곤 먼저 자라고 아이들을 눕히고 나와 전날 국장님이 주신 『청라도』를 펼쳐 들었습니다. 반 정도 읽고 나니 밤이 자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자려고 방안에 들어와 자고 있는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니, 자는 줄만 알았던 딸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내심 당황스러워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들 녀석이 딸아이 때문에 혼났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들을 혼내려고 보니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에 골아 떨어져 코까지 골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때문에 제 오빠까지 혼난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분해서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딸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어도 울음은 멈추지 않고,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딸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네요.

이들이라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그리고 혼을 낼 때는 아이들의 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텐데도 나 자신이 분함을 못 이기고 혼을 낸 것은 집중을 하지 않아 숙제가 늦어진 딸아이의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이고 10살 아이의 울음보다도 훨씬 더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밤이 깊어 가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어른이고 쌍둥이 아빠지만 생각만은 여전히 유치찬란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쌍둥이한테 더욱 더 미안한 것 같습니다.

간추린서구사

선사시대

서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서구 대곡동에 있는 고인돌로 보아 적어도 청동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도구나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비교적 순응하기 쉬운 자연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뿌리내렸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넓은 갯벌이 발달하고 낮은 구릉지가 많이 있는 서구는 어쩌면 원시시대 사람들이 살기에는 최상의 지역이었고 유물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삼국시대

역사에 인천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 비류왕자가 남으로 내려와 미추홀(지금의 인천)에 나라를 세울 때부터이다. 미추홀국은 문학산을 근거지로 하였다. 당시 미추홀이 서구를 관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문학산노가 서구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 역시 미추홀국의 영향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추홀국과 십제(온조가 세운 나라)가 통합하여 백제를 건국하자 백제의 통치하에 있었다.

서구를 비롯한 부평지역에 처음으로 읍호(읍의 이름)가 생긴 것은 고구려가 백제에게서 인천 지역을 빼앗은 이후부터이다. 고구려는 지금의 서구와 부평, 계양구 일대를 주부토군이라 칭하였다. 이후 신라가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름도 장제군으로 고쳐 불렀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부평, 서구일대의 이름은 수주이다. 당시 '주'는 큰 고을에 붙인 행정지명이다. 의종 4년(1150), 고려는 수도 개경을 방비하기 위해 4개의 도호부를 두었는데 이때 수주를 안남도호부로 바꾸었다. 고종 2년에는 다시 계양도호부로 바뀌는데 이규보가 계양도호부사로 부임하여 많은 시를 남겼다. 고종 때 몽고의 대군이 침입하면서 39년에 걸쳐 항전했지만 고려는 결국 몽고의 사위국으로 전락한다. 이때부터 고려의 왕자는 몽고에 인질로 가서 몽고의 풍습과 몽고의 언어를 익혀야 했으며 커서는 원나라(몽고) 황제의 여러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해야 했다. 충렬왕 역시 어려서 몽고에 가서 몽고여인과 결혼한 후 돌아와 왕이 되었다. 몽고에서 자란 충렬왕은 매사냥을 즐겨 징맹이고개(현 계양산 경명현)에 매방을 설치하고 수렵을 즐겨하였다. 그러나 계양도호부를 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충렬왕을 뒤이은 충선왕은 다시 길주목을 부평



부로 강등하였다. 이것이 부평이란 읍호가 생긴 시초이다.

조선시대

조선 태종13년(1413) 부평은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세종 때는 세종이 등창이 나서 온천이 좋다는 의원의 뜻에 따라 전국에 온천 소재지를 탐색하였다. 이때 부평에 온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조사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자 부평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으로 강등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곧 도호부로 환원 복구되었다. 갑오개혁(1895) 이후 부평부는 부평군으로 강등되어 경기도관찰부(수원)에 소속된다.

식민지시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제 치하에서 예측된 생활을 강요받았다. 1914년 일제는 인천을 예전의 개항장 일대로 축소시키면서 나머지 지역과 부평군을 통합한 부천군을 만든다. 부천이란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이때 부천군의 청사는

옛 인천군의 청사(관교동)로 배치되었다. 1936년 일제는 인천부의 관할구역을 확대한다. 일제의 목적은 인천개항 이후 해를 거듭함에 따라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지가가 높은 중심지를 피해서 인천 부외 지역에 정착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이들을 부내거주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는 인천부의 2차 부역 확장 시기인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된다. 그리고 행정 편의상 남동, 부평과 함께 서곶출장소가 생겨났다.

해방이후

해방과 함께 정부는 왜식 동명을 일제히 우리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예전의 고작리가 석남동, 포리는 원창동이 되었으며 고잔리는 경서동으로 각각 그 이름이 바뀌었다. 1968년 인천시는 구(區)제로 개편되면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등 4대의 구를 둔다. 서곶출장소는 북구에 소속되었다. 이후 인천의 시세(市勢)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1988년에는 북구가 북구와 서구로 분구되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음식상식 50가지



음식상식

1. 참외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2. 녹차 > 우롱차 > 홍차 순으로 항암 효과가 크다.
3. 식후에 커피, 녹차, 홍차를 바로 마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4.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 든 식품은 청소년의 성장을 억제한다.
5. 올리고당이 많은 콩은 우유, 요구르트 못지않게 장내에 유익한 균증식에 효과가 있다.
6. 흰 쌀밥만 먹으면 비타민 B6가 모자라 뇌신경이 퇴화 되어 치매가 생기기 쉽다.

재료별상식

7. 뿌리채소(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 해서 배변시킨다.
8. 버섯류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
9. 콩의 비린 맛(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10. 대추와 무화과 요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11. 미역은 쌀밥의 산도를 중화, 산성식품의 과다섭취를 막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이다.
12. 오미자는 간기능에 뛰어난 약효를 갖고 있다.
13. 고사리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한다.
14. 당근은 잘게 자르거나 으개면 유익한 성분인 카로틴 이 급속히 산화된다.
15. 밤은 속껍질과 과육에 탄닌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다.
16. 인삼은 꿀에 재 놓으면 일종의 독소성분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다.
17. 갈치는 부스럼이나 습진 등 피부염이 있을 땐 먹지 않는 게 좋다.
18. 파래속에 함유된 메틸 메티오닌은 위, 십이지장궤양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19. 툇은 바다식품 중 알칼리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20. 달걀은 쇠고기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21. 당근, 풋고추, 간, 옥수수, 쌀겨, 미꾸라지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22. 부추(정구지)를 먹으면 창자가 튼튼해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
23. 양파는 날로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체내 흡수가 빠르다.

식생활 상식

24. 단 음식은 침의 분비가 많은 식사직후에 먹는다.
25. 폐경여성에게는 콩과 함께 자두가 좋은 식품이다.
26. 복숭아 과육은 담배의 니코틴독을 푼다.
27.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28. 떡갈나무 잎이 냉장고의 냄새를 제거한다.
29.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담배, 기름기 많은 고기, 계란 노른자, 버터 등을 제한한다.
30.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해진다.
31. 남은 음식물을 보관할 때 식초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32. 야채나 과일을 식초 1작은 술 넣은 물에 30분쯤 담가 두면 농약과 중금속이 제거된다.
33. 볶아둔 참깨를 사용 전에 한 번 더 볶으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
34. 적포도주 뿐 아니라 포도주스는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35. 육류는 냉장실, 생선, 조개류는 물에 담가 해동을 시킨다.
36. 술은 고환기능저하를 초래해 남성호르몬수치를 떨어뜨린다.
37. 식후 4~5시간 후에 간식을 먹으면 두뇌활동에 도움이 된다.
38. 직장인의 1일 간식은 김밥 반줄, 주스 반컵 정도가 적당하다.
39. 마늘을 구워 매끼마다 3~5개씩 먹어라,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력이 좋아진다.



증상별 상식

40. 숙취에는 오이 한 개 반을 즈내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
41. 당뇨병에는 검은콩, 땅콩, 솔잎을 말려 분말로 복용한다.
42. 설사할 때는 신맛 나는 주스나 발포성음료수(콜라, 사이다 등)는 나쁘다.
43. 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차조기잎을 끓여 마시면 좋다.
44. 위염, 위궤양에 양배추를 날것으로 보름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45. 간염 환자는 평소에 음식을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46. 어깨가 결릴 때는 모과를 다려 먹는다.
47. 고혈압 개선에는 뽕나무차를 만들어 먹는다.
48. 류머티즘에는 울무와 마늘, 달걀이 좋다.
49. 냉증이 심할 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부추가 좋다.
50. 식은땀을 많이 흘릴 때는 검은콩을 많이 먹는다.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원	진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의회방청안내

서구의회는 구민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안내

서구의회에서는 항상 열린 의회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안내, 회의록 검색, 의정소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안내

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방청을 원하시면 서구민이면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방청문의 :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 560-4574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짙은향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투고안내 ●●●●●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분야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발행주기 1년 2회(2, 8월 25일)
- 분 량 원고지 7-8매 내외
- 제출기한 매월발행 전월 말일(1월 31일, 7월 31일 ; 수시접수가능)
- 기타사항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사진 1매
- 보내실곳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삼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